

日 정부 “독도는 일본 땅 거듭 주장...징용 판결 수용 못해”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표현...한일 협력 필요한 시기 중과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북일 정상회담 추진도 언급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겼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차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차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

다. 성명에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평화·안정·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쌍방이 오랫동안 평화와 우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동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표명했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또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중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

국 당국이 구축한 일본인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사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 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

“군사 대응 원하지만 국제사회 압박 영향 미쳐”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반격 여부와 관련,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했다.

또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다만, 전시내각은 이란이 실행한 수위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부연했다.

일간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또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과 헤



이스라엘 전시 각료회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로 중동 정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르즈 할레비 참모총장은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란 공격 방어에 힘을 보탠 미국 등 우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 170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으며 일부 탄도 미사일이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네바팀 공군기지는 최신에 전투기인 F-35를 운용하는 장소다.

그러나 미 ABC 방송은 이란이 당시 쏜 탄도미사일 가운데 9발이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방아망시를 뚫었으며 이 중 5발이 네바팀 기지에 떨어지면서 C-130 수송기와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빈 창고 등이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할레비 참모총장은 이날 네바

팀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능력을 훼손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공중전에서 이란에 우월성을 보여줄 ‘강철 방패’ 작전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할레비 참모총장은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다음 단계를 고려한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에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수단 내전 1년...국제사회 3조 지원 약속

프랑스 파리서 인도주의 지원 촉구 국제회의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 발발 1년째인 15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수단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3조원가량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장관급 국제회의를 폐막하며 “프랑스에서 1억5천만유로 등 20억유로(2조9천억원) 이상이 수단을 돕기 위해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가려져 점점 잊히는 수단 내 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내전이

촉발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맞서 각국의 원조를 끌어내고자 프랑스와 독일, 유럽연합(EU) 국가가 공동 주최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15일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 1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교전으로 그동안 1만5천명 명게 숨지고 8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그러나 2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0월 터진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관심권에 서 밀려났다. /연합뉴스

英 해리 왕자 ‘경호 등급 강등 부담’ 항소 불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영국 내 경호 등급 강등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해리 왕자에게 경찰 경호를 자동 제공하지 않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지난달 판결과 관련, 해리 왕자의 항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건에서 자동으로 상소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

니라 상소를 위한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해리 왕자를 왕실 주요 인사에게 제공되는 자동 경찰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례별 맞춤형 경호만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인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 해리 왕자는 2020년 1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후 북미로 건너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